

주부신행담

미국서 겪은 기도의 힘

미 국으로 떠나기 전 밤에 한테서 전화가 왔다. 딸이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라는 곳은 절도 없거나와 불교를 믿는다면 무조건 마귀로 본다는 것이었다. 딸은 어마인 내가 실망할 것 같아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목적지 랄리는 중소도시로서 학교가 유난히 좋고, 집은 시내에서 10분거리에 있는 안전한 숲속의 빌라같은 아파트였다. 도착해보니 온 천지가 잔디밭이고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나무 자체가 모두 몇 백년은 되어 보이는 거목들이었고, 녹색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에 나는 나도 모르게 "아 너무 좋다"고 외쳤다.

하루 또 이틀이 지나자 순복음교회 목사, 힐레교의 집사 라는 분들이 찾아왔다. 자연히 소개를 받고 내 소개도 하는 일이 생겼다. 그때마다 나는 불교신자라고 당당히 말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은 딸 내외였다. 하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한 달이나 지났을까. 학교 관계로 온 사위가 다시 서울 본교로 돌아가게 되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남겨 된 딸이 걱정되었다. 여기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아이들이 대견스럽게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쓸쓸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같이라도 있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간절했고 우리 스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불경이 절로 나왔다.

사위가 서울로 돌아간 뒤 아이들의 생활이 현지 불안해 보였다. 그래도 내가 옆에 있으니 다소 위안은 되었겠지만 같은 동포인데도 전부가 기독교도여서 유독 우리 아이들이 쓸쓸해 보였다. 사람들의 발달도 떨어지고 해서, 나는 매일 혼자 있는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매일 혼자 있는 시간을 깊은 산중에 있는 암자에 와 있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고 부처님께 기도로서 의지할 것을 결심했다. 아울러 이

어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표본인 실증을 보여주고 싶었고 부처님의 가피가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게 하자는 원이 있었다. 딸은 어려서부터 누구보다 내 옆에서 나의 불심을 지켜본 아이였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타지에서 너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언제나 긴장 속에서 사는 모습이 나에게 정말 안스럽게 느껴졌다. 사위가 2월5일 떠나자 나는 2월7일부터 5월21일까지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먼 여행은 물론 바깥 구경도 삼가고 기도에 임했다. 한국서 가지고 간 관세음보살님 달력을 벽에 걸고 꽃 화분 하나

개월하고 10일 동안은 가까운 곳 이외는 구경도 못하고 기도에만 전념했다. 마침내 회향일인 5월 21일이 돌아왔다.

그 날은 일요일이라 식구가 녹장을 부릴 것이라 생각하여 새벽 3시에 일어나 만 번의 정근을 마치고 바로 예불 독경으로 백일 동안의 어려움을 기도를 끝마쳤다. 그래서 모처럼 푸근한 마음으로 별식이나 해서 애들하고 아침을 먹으려고 부엌으로 갔다. 채소를 씻고 있는데, 딸이 와서 "엄마 연기가 자욱해요"하는 것이었다.

딸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불이 났다며 큰소리로 외쳤다. 벌써 불길은 불이 난 집



그림 · 이준석

백일기도를 생각하며 관음정근을 하니 덤벼들던 불길이 반대로 방향을 바꿨다 믿음의 힘이 그렇게 큰 줄 정말 몰랐다

사 놓은 것을 공양으로 향을 올리고 시작했다.

100일 기도를 시작한 나에게 힘이 된 것은 거실에서 유리창 밖 정면에 보이는 오래된 고목 한 그루였다. 처음 여기 왔을 때 겨울이라 눈이 많았는데, 그 눈 속에서도 어느 나무보다 나뭇잎이 무거져 뚜렷한 초록색을 보이며 싱싱해 보였다. 그 나무의 모습이 묘하게 나에게 부처님께서 가부좌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으로 꾸민 법당에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할 수 있었다.

하루에 만 번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고 오전 10시에 향을 올리고 예불하는 것을 시작으로 독경을 하고 108배를 했다. 마지막에는 회향길 약한계 광명진언으로 믿음의 길을 더듬어 갔다. 3

창 밖으로 내비치며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딸 집에서 한 집 건너에서 불이 났는데, 목조로 된 이 아파트에 정부 카펫이 깔려 있어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왔다. 담황한 나는 뒤 돌아볼 여유없이 딸과 손자들을 붙들고 집을 빠져 나왔다. 영겁같이 나오느라 작은 손자는 웃도 못 입고 캔터바람에 신도 못신은 채였다.

한 동네 36가구가 살고 있고, 지하까지 3층인 이 아파트를 어느새 불길은 금방이라도 한꺼번에 삼켜버릴 듯이 번져가고 있었다. 소방차가 오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도 불길은 무섭게 번져만 갔다. 멀리서 쳐다보니 불이 난 집 한 집 건너에 있는 딸의 집도 불이 붙는 것처럼

보였다. 내 옆에 있던 딸은 잔디에 얼도려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다. 특히 이 아파트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 마치 외국인종들의 집합소 같은 곳이었지만, 모두들 걱정스런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일요일이라 피해가 더 심했다.

그렇지만 나는 백일기도를 생각하며 절대로 부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과 울고 있는 딸에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찾아라"며 여기가 미국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합장하고 눈을 감고는 소리내어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다. 바로 오늘이 100일 기도의 회향일이라는 것이 더욱더 신기했고 관세음보살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마음에, 불을 처음 봤을 때보다는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았다.

불길이 워낙 거세서서 불길을 잡지 못하는 소방대원들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99%는 딸의 집도 불이 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딸의 집 쪽으로 덩벼들던 불길이 반대로 불이 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고맙습니다, 부처님"을 연발했다. 그리고 옆에서 계속 울고 있는 딸의 귀에다 "절대 너의 집은 타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 믿음이라는 힘이 이렇게 든든하고 장할 줄은

정말 몰랐다. 관세음보살 보문공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찾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불 속에 있어도 타지 않느니라"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이 나에게 이때처럼 힘을 준 일 없었다.

어느 정도 화재가 진화되고 오후 3시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해서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을 마주보고 있는 건너편 집은 완전히 타버려 폭삭 주저앉아 있었지만 딸의 집은 한 방울 흐른 자국없이 빠져 나올 때 그대로였다. 기도를 마치고 회향하는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 너무도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화재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가스과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우리는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해진 집도 깨끗하고 돌아 다시 부처님의 가피에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은 미국 땅에서는 교회에 안 나오면 동료들도 찾아오지 않고 따돌림당하는 것이다. 인정사정 없는 이 종교전쟁에서 언제 우리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퍼져나갈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미국에서 부처님의 실증과 가피를 받고 나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성불의 길을 다짐해 본다.

이해호(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인간과 지구를 사랑합니다.

스트레스로 지친 업무를 마치고자기만의 RELAX타임 - 피곤함을 말기엔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함으로 인도합니다.



●가족형 안마의자

프로의 손놀림시스템

2개의 모터로서 가능하다
사람의 손으로는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기분
두드리며 주무름

필요한 '주무름'과 올라가고 내려가는 타이밍

신·터블Z안마

SANYO독자의 2주무름을 한층더 친화시켜 동작은 2회씩 반복합니다. 또한 머리, 어깨부와 등, 허리부의 2행로 주무름 수법으로 마사지효과를 한층더 높였습니다.

2모터 - 4계봉은 프로의 손놀림에 한정하지 않고 가볍고 빨리!&편안한 마사지

마사지의 부동은 신개발의 2계봉, 사람의 손으로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기분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주무름봉의 평행각도가 50도까지 움직여 세 주무름 봉이 전하는 에너지 하리에도 꼭 맞습니다.SANYO의 2모터 4계봉은 빠르고 편안한 이상의적인 주무름 기본입니다.

▶상담전화 02)2281-4837~9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 황동(순금도금) ■직경 : 80mm ■가격 : 5만원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후면

■판매 : 인터넷 불교 책화점 마이님 ■계좌 : 한국조폐공사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비색 스카프

고구려 벽화무늬 가운데 무용총 벽화, 부여에서 출토된 용봉 대향로 등을 토대로 디자인하여 상품화한 스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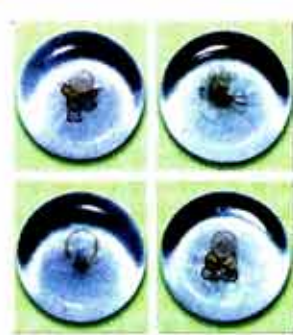
▶ 무용총스카프

▶ 백제향토스카프

전통비색 스카프의 작업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과정을 100% 수작업으로 온갖 장성을 기울여 제작하였으며, 제품의 격조를 좌우하는 최고의 핵심인 나염작업도 수작업으로 처리함으로써 장인정신을 견지하였다.

- ▶ 규격 가로 36" x 세로 23"
- ▶ 재질 실크100% Twill
- ▶ 가격 : 80,000원

불교 캐릭터 무공해 투명 한방 미용 비누



천연, 한방원료를 사용하여 피부의 노폐물 및 메이크업 잔여물까지도 깨끗이 한방의 투명 미용비누는 키도산, 죽염, 홍삼 향토, 프로 폴리스 등 천연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세정 마사지 효과, 피부보호방지 효과, 진주예방 효과, 미백효과 등 평상시 피부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무공해 미용비누입니다. 투명한 비누 속에 귀여운 동자승의 모습은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진다는 선조들의 임상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입니다!

- 1개 당 : 3,000 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 6개 1세트 : 16,000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 500개 이상 : 개당 20%할인
- 10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첨가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